

“전주시청 앞 연등축제 보러오세요”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 발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3월 2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열고 불기 2552년 봉축일정과 봉축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12일 통일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16일에는 35사단 세병호 일원에서 연등제가 봉행된다. 26일에는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백일장, 사생대회, 민속놀이, 전통차 체험 등 '전북 어린이 큰 잔치'가 펼쳐진다.

전북지역 봉축행사의 특징은 지역사회 곳곳의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 35사단 장영사 등 지역 군법당과 전주·군산교도소, 회광원 등 여러 시설에서 순차적인 위문법회가 계획돼 있다.

5월 7일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각 사찰 합창단이 함께하는 연합합창제가 지역민과 함께 응성공양을 하고, 5월10일에는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가 전주 시청 노송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비빔밥 큰잔치와 함께 연등 만들기, 농악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다.

5월 24일에는 금산사에서 열리는 모야 청소년 축제를 끝으로 봉축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행사명	일시	장소
기원탑 점등식	4월 12일 19시	통일로 회단
연등제(35사단)	4월 16일 19시	35사단 세병호
위문법회	4월 12일~5월 11일	전주·군산교도소, 소년원 등
불우 이웃돕기	4월 12일~5월 11일	회광원, 군산보현오양원, 나눔의 집 등
연합합창제	5월 7일 19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연등 축제	5월 10일 17시	전주시청
지역행사	4월 12일~5월 11일	시군 단위 지역행사
전북 어린이 큰잔치	4월 26일 10시	전주 덕진공원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4일	금산사
법요식	5월 12일 10시	각 사찰 관법당

“생명의 소중한 배우는 도량”

호남지역 교구본사협, 합평에 방생습지 조성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남 합평에서 열리는 '2008년 세계나비·곤충 엑스포'에 불교의 생명관을 보여주는 방생지가 설치·운영된다.

광주전남지역 4교구본사협의 회장 성오, 백양사 주지와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총 2km 길이 164m 크기로 방생지를 조성해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엑스포 방생지는 참가자들이 직접 토착 어종 및 식물들을 방생하는 공간이다. 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방생체제를 통해 불교의 생명관 등을 배우게 되며, 조

성된 방생지는 영구습지로 보존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교구본사협의회의 엑스포 개장에 앞선 4월 12일 합평 엑스포공원에서 엑스포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부처님과 생명을 주제로 법문하는 것을 비롯해 방생습지 조성식수, 나비 날리기,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한편 합평 엑스포는 초대형 세계곤충박람회로 매년 약 200만명이 다녀가는 대표적 지역축제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초월 '한마음 대축제' 열린다

광주지역 불교와 가톨릭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전통불교영상학회(회장 호산·사진)는 가톨릭 광주대교구(주교 김희중)와 함께 4월 19일 광주 영주실내체육관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되는 한마음 대축제'를 펼친다.

광주·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에서는 영상회 소속 스님들의 법패시연과 광주지역 불교·가톨릭 합창단 공연, 시립극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마음 대축제 추진위원장 혜명 스님(수덕사 주지)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위해 불교와 가톨릭이 하나된 축제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통불교영상학회는 1993년 불교전통의식을 재정립하고 계승하기 위해 창립돼 40여명의 스님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음 바쳐 사경...하심배웠어요”

‘반아심경’ 3000장 보시한 김정두 거사

“어려서 배운 붓글씨를 회향할 좋은 방법을 찾다가 <반아심경>을 사경해 불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반야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반아심경>을 사경해 3000장을 불자들에게 보시해 온 불자가 있어 화제다. 김정두 거사(62·익산시)는 “작은 봉사로 시작했지만 사경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김 거사는 “부처님께서 설한 말씀을 사경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과정 그 자체가 오롯한 수행”이라며 수차례 시행 착오를 겪으며 반복된 연습을 통해 한 획 그을 때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



는 연습을 한다고 표현했다.

“2004년 어느날, 우연히 찾은 불자에게 <반아심경>을 선물로 줬을 때 환희에 차 받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계속 사경을 하게 됐다”며 김정두 거사는 주로 급수 사경을 했다. 그의 필력과 원력이 사찰까지 전해지면서 그

는 원주 송광사, 보은 법주사, 양양 낙산사 등의 복장물로 보시하기도 했다.

김정두 거사의 필력은 이미 2006년도 전북 서예대전에서 삼채상 수상 등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리불교대학 16기 회장을 역임하고 익산거사회에서 활동하는 김정두 거사의 신행 활동 역시 지역사회 불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김 거사는 “앞으로도 사경을 통한 전법과 포교, 보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신을 집중해 사경하다보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불자들에게 사경을 권했다. 김 거사는 “앞으로 <반아심경> 뿐 아니라 <금강경> <원각경> 등 모든 경전을 두루 사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화엄사, 지역민과 풍년기원제 열어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28일 구례군 농민회, 기자자동차 조 등과 함께 2008년 구례농민 통일 공동경작단 발대식을 갖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종삼 스님은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요, 농민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이 근본이 흔들리면

운전할 생명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느 때 보다 힘든 때”라고 위로하면서 “불기운처럼 다함께 생동하자”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구례군과 자매결

연을 맺고 사찰 내에 구례군 특산물 전시매장을 운영해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07년에는 구례군의 농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수확한 500여 톤의 쌀을 북한 개성 공동마을에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 통일쌀은 경작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30일 공동경작 못자리, 5월 모내기과 10월 벼베기 행사를 거쳐 12월초에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자비신행회 재가회업학림 정원채 학장

“이웃 행복위해 ‘나’ 잊어요”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다보면 길가에 자리한 작은 폐교를 만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의 자비나눔 공동체인 '자비신행회'가 활동하는 보급자리이다.

1999년, 3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로 시작한 자비신행회는 노인복지센터, 차문화아가데미, 외국인 노동자센터, 시민선방, 재가회업학림 등 신행은 물론 사회 복지, 불교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고자 하는 자비신행회의 중심에 재가회업학림 정원채 학장(70)이 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시작 문화·수행·교육사업 확산시켜

교 교장을 역임한 정 학장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타종교를 신앙했다. “제 담당이 국어였지만 좋은 시나수필 등 진정한 문학을 가르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18년간 고교 3학년 진학지도를 하다보니 교과서만 달달 외워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열적으로 살았던 것이 허탈했고, 뭔가 해놓은 것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우연히 불교를 만났다. 지나버린 삶보다는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동안 받으려 살았으니 이제는 이웃에게 회향하며 살고 싶었다. ‘곱게 늙으려면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열심히 정진하고 실천에 힘썼다.

정 학장은 불교대학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도반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마음이 헤아릴 때면 생명과 행복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탁발순례 중인 도반 스님을 떠올리곤 한다.

“상생(相生)으로 모든 이가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의 인도량적 생명관과 실천행을 펴고 싶다”는 정 학장의 뜻을 스님이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가사 선우회장으로 취임한 정 학장은 100일기도를 했다. 불교와의 만남으로 뜻대운은 삶의 일부가 됐다. “공부하는데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만족하며 살아야죠.”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신선이 옹호할 것이며, 승종과 나한이 삼계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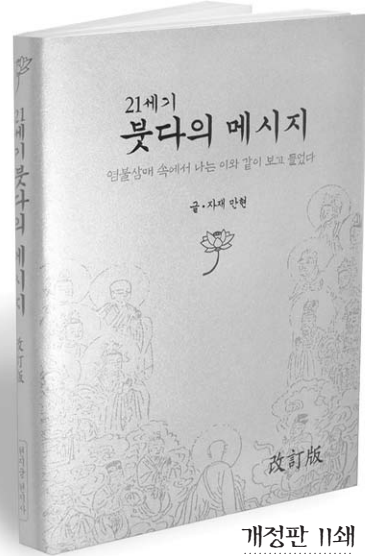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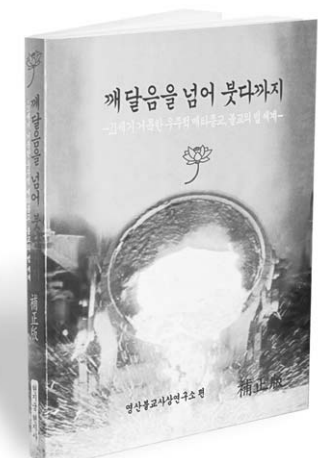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13발췌 2여년만에 들어감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계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 스승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